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이단 대책 세미나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가 세 차례에 걸쳐 ‘이단 대책 세미나’ 를 연다.

장소는 LA백송교회(담임목사 김성식, 3251 W. 6th St. #B1, LA, CA 90020)이다.

세미나 강사로는 한선희 목사(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장)가 나선다.

세미나 일시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7월 18일 오후 2시, 이단의 이해와 한국인의 종교 심성
- 7월 25일, 신천지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 8월 1일, 인터콥

한선희 목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문의: (213) 674-7966, (213) 245-6616

사랑의 캠프 밀알선교단

장애인들에 대한 전도와 봉사, 계몽 사역을 해 오고 있는 선교단체 ‘밀알선교단’ (단장 이종희 목사)이 ‘Jesus Connection’ (요한복음 15:5)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캠프’ 를 연다. 이 행사는 오는 29일(목) ~ 31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캠프 참가 비용은 50달러이며 등록 기한은 7월 15일이다.

이종희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 면서 “후원자들에게서 베푸는 작은 사랑의 손길이 역경 속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전하고 느끼게 할 것이다. 후원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 문의: (562) 229-0001, MilalMission.com



열반은 죽음 아닌 완전한 자기해방



열반이란 말을 불교에서 죽음을 대신해 사용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열반이 죽음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도, 흔히 열반이라고 하면 죽음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반이란 말에는 죽음이란 소극적인 뜻만이 아닌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를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닌, 조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열반의 자리는 청정무구의 자리입니다. 열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알맹이로 변이된 자리이며,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욕정의 불길 이 청정한 향기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열반을 증득(證得)한다는 것은 부처가 깨달음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며, 부처의 진리 행업을 실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처의 자리가 열반 구경지의 자리이므로 여기에서는 번뇌의 티가 없고 욕심

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른법에 귀의하여 바른 행을 닦아가는 최상승(最上乘)의 과행을 저어 가는 길이 바로 열반의 길입니다.

열반을 증득하는 길은 끊임 없는 고난의 길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수행의 길이란 것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 속에 자아를 귀의시키는 것입니다.

진리 속의 자아는 무아(無我)의 나, 즉 나 없는 ‘나’ 입니다. ‘나’ 를 이름 짓지 않은 ‘나’ 로서 행함이 ‘참나’ 의 행업이므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증득하기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바치지 않고, 번뇌를 버리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계(戒)를 지키지 않고서는 참다운 진리인 부처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육신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투로 이룩한 깨달음을 통해 자기해방의 길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해방은 ‘참나’ 를 이룩하는 열반의 광명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안은 흐리고 어둡지만 열반의 눈은 광명의 눈입니다. 이것은 걸림 없이 투

과하는 직사의 빛입니다. 굴곡 없이 반사하고, 막힘 없이 관조하는 지혜의 눈이 바로 열반의 빛입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여래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깨끗한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세간의 계율은 청정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세간의 계율은 있음을 위하는 연고이며, 성품이 결정되지 못한 연고이며, 끝까지 이르지 못한 연고이며, 모든 중생을 널리 위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하다 이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은 계행의 청정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행이란 속제의 생활에서 지키는 계행이 아니라 진제의 생활에서 지키는 계행입니다. 열반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가 아닌 것과 같이 생명을 바쳐 증득한 것이므로, 종교 생활의 최후 목적이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청담 스님-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